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

해남고, 조화로움의 아름다움 ‘제2회 교내 합창대회’

534803 : 04 : #8=3 ;



전남 해남고등학교(교장 조태형)는 지난 14일, 창의 예술관 소강당에서 제2회 교내 합창 경연대회를 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공감하고 호흡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합창대회는 1학년 9개 반 학생들이 반별로 지정곡인 ‘You raise me up’과 각 반의 개성이 담긴 여러 자유곡을 준비해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 공부에 지친 피곤함을 떨쳐내고 함께 만드는 조화로움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찬조 출연으로 함께한 호놀룰루합창단, 카멜리아 학부모합창단, 칸타빌레 관현악부, 통기타와 오카리나 합주팀, 2학년 중창단, 남교사 중창단 ‘브라더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해 대회의 재미를 더욱 높였다.

특히, 해남고의 특색 사업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호놀룰루합창단과 카멜리아 학부모합창단은 꾸준한 준비와 성실한 연습량으로 수준 높은 하모니를 선사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회에 참가한 이도윤 학생은 “경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서 협력하는 마음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해 준 고마운 대회였다”며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었고 화합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15일에는 독일 자브뤼켄 Classical MUSIC Academy 원장 키릴 차네프스키 제1바이올린 연주자와 독일 자브뤼켄 Classical MUSIC Academy 건반학부 과장으로 재직 중인 피아노 연주자 장복연씨의 클라세 앙상블 공연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장복연씨는 “클라세 듀오 연주를 통해 조금 더 쉽게 클래식 음악에 대해 알게 되고 음악을 통해 따뜻한 감성과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준 높은 공연 관람 태도를 보여 준 해남고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해남고등학교는 거점고 창의 예술관을 적극 활용한 특색 사업으로 합창단을 조직해 2014년 6월 13일에 개최된 전남도민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수준 높은 합창실력을 과시한 바 있다.

해남 신영삼 기자 news032@

Frs | uij kw#Qhz vZ d | #P rusrudwlrq 1#D a#uj kw#uhvuyhg 1#